

신임 아동작업치료사의 임상 경험에 대한 현상학적 연구

홍은정*, 김경미**

*인제대학교 대학원 재활과학과

**인제대학교 의생명공학대학 작업치료학과

국문초록

목적 : 신임 아동작업치료사가 임상에서 겪는 경험의 의미를 파악하고, 어려움에 대한 적응 전략을 알아보는 것이다.
연구방법 : 신임 아동작업치료사의 임상 경험을 알아보기 위해 질적 연구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 대상자는 10~11개월의 임상경험이 있는 5명의 아동작업치료사들이었다. 자료 수집을 위해 일대일 면담방법을 주로 이용하였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내용의 수집 및 대상자의 면담 내용 확인은 이메일을 이용하였다. 면담내용은 녹음하였고, 녹음된 내용을 여러 번 듣고 전사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 신임 아동작업치료사가 겪는 임상 경험에 관하여 14개의 중심의미와 5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신임 아동작업치료사는 아동작업치료에 대한 기대, 능력 부족, 조직생활에 대한 감정, 교육에 대한 열망, 적응 전략을 경험하였다. 아동작업치료에 대한 기대의 중심의미에는 아동작업치료의 선택, 기대, 역할이 포함되었고, 능력 부족의 중심의미에는 치료에 대한 불확실성 및 자신감 부족이 있었다. 조직생활에 대한 감정의 중심의미에는 조직체계에 대한 만족과 불만, 대인관계의 어려움, 그리고 직무에 대한 만족과 불만이 포함되었다. 교육에 대한 열망의 중심의미에는 학교 교육, 교육에 대한 지각, 교육방법이 포함되었으며 적응 전략의 중심의미에는 개인생활, 치료와 조직의 적응 전략이 있었다.

결론 : 신임 아동작업치료사들은 임상에서 아동작업치료에 대한 기대, 능력 부족, 조직생활에 대한 감정, 교육에 대한 열망, 적응 전략의 경험을 겪었다. 신임 아동작업치료사들이 아동작업치료사로써의 역할에 부응하고, 소속기관에 적응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기관장이나 선임 치료사들이 협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교과과정의 개편 및 기관의 제도적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주제어 : 신임 아동작업치료사, 임상 경험, 현상학적 연구

I. 서론

전체 작업치료사 중 아동작업치료사는 29.9%를 차지하고, 신생아부터 18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치료한다(이향숙, 2011; Frost, 2011). 아동작업치료사의 역할은 아동의 행동, 작업 그리고 배경을 고려하여 평가, 치료, 상

단, 교육하는 것이다. 이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아동작업치료사는 의학적 세팅과 지역사회 세팅, 학교 세팅으로 나누어 일하고, 각 세팅에 따라 요구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아동작업치료사는 의학적 중재에서 학교 교육 환경으로 전환하는 과정, 아동의 기술 습득과정, 새로운 환경에서 예상되는 문제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전환 계획 등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Case-Smith, 2007; Myers, 2008). 아동작업치료사는 아동의 가족을 도와 가정, 학교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아동의 참여를 증진시킬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한다(Case-Smith, 2007).

신임 아동작업치료사들은 보건계열대학을 졸업하고, 임상이라는 직업 환경에 입문하게 된다. 현재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전공에 대한 공부는 국가고시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김경미와 이재신, 2002). 교과과정의 실습은 주로 관찰에 한정되어 있고, 실제적인 아동을 대상으로 한 평가 및 치료는 부족하다(김진경, 박소연, 이택영과 강대혁, 2004). 또한, 실습한 기관과 졸업한 뒤 근무하는 기관의 차이로 인해 신임 아동작업치료사들은 독립적으로 치료를 수행할 수 있는 준비가 미비하다(김경미 등, 2004; 김진경 등, 2004). May, Morgan, Lemke, Karst와 Stone(1995)은 교실에서 임상으로 전환하는 과정이 학생들의 가장 큰 도전이라고 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신임 아동작업치료사들은 임상의 새로운 환경에 대한 현실충격이나 역할충격, 불확실성, 대인관계 및 전문적 기술의 필요성, 그리고 환자와 상호관계를 통해 만족감을 경험한다(May et al., 1995; Seah, Mackenzie, & Gamble, 2011; Tryssenaar & Perkins, 2001).

초기 임상 1년 동안 신임 아동작업치료사들이 직업과 관련하여 경험하는 것은 이후의 조직과 관련된 가치관 및 태도,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친다(김정연과 김인숙, 2005). 또한, 이 시기는 전문적인 치료 발전을 위해서도 중요하다(Alison & Gullberg, 1991; Atkinson & Steward, 1997; Schwertner, Pinkston, O'Sullivan, & Denton, 1987; Slocum, 1998). 입사 초기에 신임 아동작업치료사들이 조직 내에 적응하지 못하면, 자신의 직무나 역할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을 효과적으로 습득하지 못하게 되고 업무성으로 언어지는 성취감과 자신감, 만족감을 느끼지 못하며 갈등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갈등은 초기 조직생활에서 많이 경험하게 되고, 조직에 대한 태도를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친다(한상숙, 손인순과 김남은, 2009). 부정적인 조직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 부적절한 치료 내용, 치료에 대한 불만족, 그리고 자신감 저하는 치료사 개인과 기관 그리고 서비스 대상자에게 악영향을 미친다.

최근의 국내 아동작업치료사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면,

작업치료의 직무분석, 조직몰입, 직무만족도에 관한 것으로 실태조사가 주를 이루고 있다(심재훈, 차태현과 오덕원, 2009; 이향숙, 2011; 이향숙 등, 2010). 이는 양적 연구로 치료사 개인과 제한된 직무 환경의 관련성을 연구하여 연구 대상자가 겪는 경험의 본질과 의미를 알아내는데 한계가 있다.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아동작업치료의 수행은 치료를 제공하는 치료사의 환경과 상황을 이해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특히, 신임 아동작업치료사는 학교에서 임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환경과 상황에 놓이게 되고 다양한 경험을 겪으면서 전문가로 자기인식과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을 밟게 된다. 따라서 신임 아동작업치료사의 관점에서 그들의 경험을 이해하고, 경험의 본질을 심층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현상학적 연구가 필요하다. 현상학적 연구는 연구자의 관점이 아닌 연구 대상자의 관점에서 그들의 일상생활, 생생한 경험과 경험의 의미를 이해하려고 시도하므로 신임 아동작업치료사가 겪는 경험을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적합한 방법이다(이정하, 2004).

본 연구의 목적은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통해 신임 아동작업치료사가 임상에서 겪는 실질적인 경험을 알아보고, 나타나는 문제점을 해결 할 수 있는 전략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조직 내에서 치료사로써의 적응을 돕고, 예비 아동작업치료사에게 미래를 대비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하며, 대학 교육 과정 및 임상현장의 관리자들에게 발전적인 기초 자료를 제시한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수집

본 연구는 신임 아동작업치료사의 임상경험을 알기 위해 질적 연구의 현상학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대상자의 포함조건은 10~12개월의 임상경험을 가진 작업치료사, 이전에 다른 직업경험을 가지지 않은 자, 아동을 대상으로 치료하는 자,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였다. 총 5명의 신임 아동작업치료사가 연구에 참여하였다. 연구대상자는 남자 1명, 여자 4명이었고 10~11개월의 임상경험을 가지고 있었으며 모두 전일제 근무를 하였다(표 1). 현상학적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연구 대상자가

연구될 현상을 경험하였고, 자신들이 의식적 경험을 잘 표현할 수 있어야 한다(Creswell, 2003). 이에 따라 연구 대상자 선정시 본 연구자와 대면 면담(face-to-face interview)을 하기 위해 지역 내에 있는 사람으로 하였다. 또한, 자신의 일상적인 경험을 적극적으로 표현하고, 연구자와 관계 형성이 잘 되어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자신의 내면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였다.

연구 대상자를 통한 자료 수집을 위해 일대일 면담방법을 주로 이용하였다. 면담을 하기 이전에 면담에 사용할 질문을 Seah 등(2011), Tryssenaar와 Perkins(2001)의 연구를 토대로 구성하였다. 선행 연구는 캐나다와 호주의 학생들이 작업치료학과를 졸업하고 임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대한 연구로 연구 대상자들이 겪는 경험을 단계별로 제시하고 있어 질문 내용 구성에 참고하였다(표 2). 자연스러운 면담을 통한 자료 수집을 위해 연구자는 미리 질문을 숙지 한 뒤 대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면담은 2011년 11월 25일부터 2011년 12월 4일까지 실시되었다. 연구 대상자와 조용한 장소에서 일대일로 면담하였고, 더

이상의 새로운 내용이 나오지 않을 때까지 진행하였으며 각 대상자별로 1시간 30분에서 2시간 20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었다. 면담 전에 연구의 참여 및 면담의 녹음에 대한 동의를 서면으로 작성하였다. 추가적으로 필요한 질문과 면담에 대한 연구 참여자의 내용 확인(reflection)은 1개월 후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졌다. 녹음은 Canon power shot SX 10 디지털카메라를 이용하였고, 녹음 후 연구자가 여러 번 반복 청취하여 전사하였다.

2. 자료 분석

자료분석은 Giorgi(2002)의 현상학적 연구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분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는 전체 인식하기였다. 연구자는 5명의 대상자들의 면담 내용을 여러 번 읽었고, 읽으면서 전체적인 윤곽이나 자료를 충분히 이해하도록 하였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대상자의 경험을 그대로 이해하고, 느낌을 파악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표 1. 연구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N=5)

특성	대상자 1	대상자 2	대상자 3	대상자 4	대상자 5
성별	남	여	여	여	여
연령	24	22	22	23	21
학력	전문대졸	전문대졸	전문대졸	전문대졸	전문대졸
근무기간	10개월	11개월	10개월	10개월	11개월
근무환경	준종합병원	센터	어린이집	어린이집	센터
근무형태	전일제	전일제	전일제	전일제	전일제
주 치료접근*	SI & NDT	SI	SI & NDT	SI	SI
치료형태	팀, 개별치료	팀, 개별, 그룹치료	팀, 개별치료	팀, 개별치료	팀, 개별, 그룹치료
지역	부산	부산	울산	울산	울산

*SI: Sensory Integration, NDT: Neurodevelopmental Treatment

표 2. 면담의 질문 내용

연구 질문	면담시 질문
"신임 아동작업치료사로서 임상에서의 경험은 어떠한가?"	아동작업치료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이었습니까?
	아동작업치료를 하면서 개인 생활이나 가치관에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작업치료의 직무와 관련하여 경험한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작업치료의 직무 이외에 경험한 것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2단계는 의미단위 구분하기였다. 연구자는 연구 목적에 초점을 맞추어 기술된 자료를 읽어다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문장이나 단어에 밑줄을 그어 표시하였다. 반복하여 읽으면서 표시한 내용의 의미단위를 구분하여 형광색으로 색칠하였다. 총 83개의 세부적 의미단위를 도출하였다.

3단계는 학문적 용어로 변형하기였다. 연구자는 선별한 문장이나 단어를 현상학적 환원의 자세에서 다시 원래의 의미로 돌아가 무엇이 신입 아동작업치료사가 경험한 것인지를 작업치료적 관점에서 판단하였다. 대상자의 일상적인 언어를 학문적 용어로 변형하였고, 만약 적합하게 함의된 학문적 용어가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면 상식의 언어로 표현하여 27개의 의미단위를 정리하였다. 이를 근거로 연구자는 구성된 범주의 의미를 재검토하여 의미단위를 통합하였다.

4단계는 구조로 통합하기였다. 27개의 의미단위를 통합하여 14개의 중심의미를 도출하였다. 중심의미의 현상에 대한 의미와 핵심을 통합하여 5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3. 질적 연구의 엄격성

본 연구에서는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위해 Guba와 Lincoln(1981)이 제시한 사실적 가치, 적용성, 일관성, 중립성을 토대로 하여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를 평가하였다.

첫째, 사실적 가치는 양적 연구에서 내적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사실적 가치 평가는 연구의 결과가 얼마나 실재를 정확히 측정하였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 평가 기준을 위하여 연구자는 신입 아동작업치료사의 임상 경험을 그들이 표현한 언어 그대로 기술하였다. 대상자가 진술한 내용을 이메일을 통해 확인하는 단계를 거쳤다. 또한, 전사된 대상자들의 진술을 반복적으로 읽으면서 의미단위가 비슷한 것끼리 묶는 작업을 반복하였다. 의문스러운 내용은 연구자들이 함께 확인하였다.

둘째, 적용성은 양적 연구의 외적타당도에 해당하는 것이다. 연구결과가 다른 상황에서 얼마나 적용될 수 있는가에 해당한다. 대상자가 연구하고자 하는 현상을 충분히 경험하고 이를 언어로 기술할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 이 평가 기준을 위해 연구자는 경력이 10~11개월인 신입 아동작업치료사를 대상으로 하였다. 그 외에도

이전에 직업을 가진 적이 없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연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 요소를 배제하였다.

셋째, 일관성은 양적 연구에서의 신뢰도를 의미하는 것이다. 연구결과가 유사한 맥락에서 일관성 있게 반복되는 정도를 말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연구방법과 자료수집 방법, 그리고 분석과정을 자세하게 기술하였고, 유사한 상황에서 반복 연구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의미단위 및 중심의미 도출은 제 1저자와 작업치료전공의 박사 과정을 수료한 대학원생 1명이 개별로 분석하였다.

넷째, 중립성은 양적 연구의 객관성에 해당하는 것이다. 분석과정과 결과 도출에서 연구자의 편견과 선입견을 분리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자는 현상에 대한 자신의 편견과 믿음을 검토하여 연구 결과에 개입되지 않도록 노력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임상 경험의 내용

약 11개월 동안 신입 아동작업치료사들이 겪는 임상 경험에 대해 구체적인 진술과 함께 각각의 주제를 제시하였다. 임상에서 신입 아동작업치료사들이 겪는 경험의 주제는 아동작업치료에 대한 기대, 능력 부족, 조직생활에 대한 감정, 교육에 대한 열망, 적응 전략이었다(표 3).

1) 아동작업치료에 대한 기대

(1) 아동작업치료사가 된 동기

대상자들은 아동과 함께 놀이하거나 치료접근방법이 좋아서 아동작업치료를 선택하게 되었다. 교과과정 중 실습시 감각통합치료를 처음 접하였고, 기존의 작업치료와 다른 점에 매력을 느꼈다고 하였다.

“자기가 정말로 재미있다고 느끼는 것을 경험해보면 좋겠다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이 아동을 치료하는 일이었어요.”(대상자 3)

“아동은 재미있겠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어요. 치료할 때 보니까 진짜 재미있구나! 진짜 해야 겠구나! 센터로 가야겠다. 병원으로 갈 생각이 없었어요. 넓은 치료실에서 아이들이랑 놀고 싶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대상자 5)

표 3. 신입 아동작업치료사의 임상 경험에 대한 의미

의미단위 요약	중심의미	주제
아동과 놀이하는 것이 좋아서 선택 실습시 좋았던 경험으로 선택	아동작업치료 선택의 동기	아동작업 치료에 대한 기대
아동작업치료에서 유명해질 거라는 기대 선임 아동작업치료사에게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기대	아동작업치료에 대한 기대	
아동작업치료사로써의 역할 만족 타 분야에 대한 기대감	아동작업치료사로써 역할	
자신의 치료가 잘 되고 있는지에 대한 의심 치료 내용에 대한 고민	치료에 대한 불확실성	
피드백 부재로 인한 자신감 부족	자신감 부족	
수평적인 조직체계에 대한 만족/ 수직계층적인 조직체계에 대한 불만	조직체계에 대한 만족과 불만족	조직 생활에 대한 감정
기관의 여건 및 규칙에 대한 불만 작업치료사들 사이의 관계 형성이 어려움	대인관계 어려움	
타분야 치료사들과 관계 형성이 어려움 치료 직무에 대한 만족	직무에 대한 만족과 불만	
치료이외 직무에 대한 불만 학교 교과과정의 한계	학교 교육	
실습지의 다양화에 대한 필요성 지속적인 공부의 필요성 지각	교육에 대한 지각	
학점은행제 및 대학원 공부에 대한 지각 세미나 등 임상 교육의 욕구 및 한계	교육 방법	교육에 대한 열망
적절한 공부 방법을 찾는데 어려움 정체성 형성 및 개인 가치관의 변화	개인 생활의 적응 전략	
일과 여가의 균형 지속적 치료적 경험을 통한 치료 전략	치료의 적응 전략	
좋은 멘토를 통한 전문성 향상 다른 치료사와의 적절한 관계 유지 전략	조직의 적응 전략	
개인의 성격 변화		

(2) 기대: 치료적 명성과 선임 아동작업치료사에게 배울 수 있다는 기대감

대상자들은 치료사가 되기 전에 긍정적인 기대감을 주로 가지고 있었다. 기대의 내용은 아동작업치료 전문성에 대한 것과 대인관계에 관한 것이었다. 대상자들은 실습할 때 관찰한 것처럼 아동과 항상 즐겁게 치료하고, 기관 내에 치료사들끼리 스터디를 하여 작업치료에 대한 전문성이 키워질 것이라고 기대하였다. 함께 일을 하는

선임 아동작업치료사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잘 가르쳐줄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또 다른 기대감으로는 보호자들에게 치료적으로 인정을 받는 것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 경험한 임상에서는 아동과 함께 치료를 하면서 어려운 점도 있었고, 선임 아동작업치료사들과 가깝게 지내며 배우는 것이 쉽지 않는 등 대상자들의 처음의 기대와 다른 점이 많았다.

“감각통합치료 수업할 때와 실습할 때 신기한 것도 있

고 아동들이랑 같이 치료하고 싶다!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도 좋지만, 예전에는 아동들이 마냥 좋았는데, 요즘에는 힘들 때도 있어요.”(대상자 4)

“예전에 여기에 실습 왔을 때 스터디가 많아서 그럴 줄 알고 취업했죠. 선생님들끼리 하는 스터디도 있고, 케이스 스터디도 있고, 그럴 줄 알고 왔어요. 학문을 계속 이어나갈 줄 알고 왔는데, 이걸 선생님들한테 이야기했다가 저만 하루에 한명씩 케이스 발표를 해요. 제 케이스가 없어질 때까지 했죠.”(대상자 1)

(3) 아동작업치료사로서의 역할

대상자들은 아동작업치료사로서의 역할에 만족감을 가지고 있었으나 경험해보지 못한 타 분야에 대한 기대감과 호기심이 있었다. 다양한 영역을 치료할 수 있다는 것과 보호자가 작업치료사로서 인정해준다는 것에 역할에 대한 만족감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경험해보지 못한 아동이나 성인작업치료분야, 다양한 치료 세팅에 대한 동경이 있었다.

“병원 쪽에 가보고 싶기는 한데 어린이집이 병원보다 덜 뻘뻘하니깐 좋고, 병원 가면 더 힘들 것 같기도 하고, 그렇게 따지니깐 복지관으로 가볼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무래도 안 가봐서 동경이 있는 것 같아요.”(대상자 3)

2) 능력 부족

(1) 치료에 대한 불확실성

모든 대상자들이 아동의 치료 내용에 대하여 확신이 없었고, 치료에 대하여 고민하였다. 대상자들은 치료한 아동에 대해 작업치료를 잘해서 좋아지는 것인지, 다른 재활분야의 치료사가 잘 치료를 해서 좋아진 것인지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였다. 아동의 문제점은 파악하고 있었으나 치료 접근 방법에 대해 어려워하였다.

“아동이 좋아졌는데 나 때문인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동이 물리치료도 같이 받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 조금 좋아지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가도 나 때문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대상자 4)

“아동들 문제점은 많이 보이는데 묶어서 큰 목표를 못 잡겠어요. 치료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고, 치료 계획을 미리 계획하긴 하는데 막상 치료할 때 다른 것을 해요. 치료 계획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고...”(대상자 2)

(2) 자신감 부족

대상자들은 선임 치료사, 보호자, 아동의 피드백을 통해 자신이 하고 있는 치료에 대한 방향을 잡았다. 그러나 보호자의 왕래가 없거나 선임 치료사와의 적절한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환경에서 근무하는 대상자들은 치료에 대한 지적이나 꾸지람을 들어 마음이 상하고, 치료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였다.

“방과 후 반이라고 해서 14살까지의 아동을 치료하는데 엄마들이랑 상담하려고 전화해도 엄마들이 치료에 지쳐서 선생님이 알아서 하라고 하세요. 귀찮다고 하세요.”(대상자 4)

“한 공간에서 치료하기 때문에 다른 선생님들의 눈치를 많이 보게 되고 1년차다 보니깐 모르는게 많아서 선생님들 눈에는 다 안 차보이니까 지적을 당하게 돼요.”(대상자 3)

3) 조직생활에 대한 감정

(1) 근무 환경에 따른 조직체계에 대한 만족과 불만

근무 환경에 따라 대상자들의 인사조직체계에 대한 만족이 달랐다. 인사조직체계에 만족하는 대상들은 비교적 수평적 조직체계 내에서 근무하였고, 치료사들 간의 상호교류를 많이 하였다. 불만족하는 대상자들은 조직체계가 수직계층적인 환경에서 근무하였다. 조직의 상하적 관계, 딱딱한 분위기와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는 것이 적응을 방해한다고 하였다. 또한, 근무 여건과 관련하여 학회 교육 지원이나 휴가, 치료실 세팅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교육 같은데 가고 싶는데 아직 연차가 안 되고, 내년의 연차를 끌어 써야 하는데 그것도 하기 힘들어요. 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은 가라고 하는데 웬만하면 주말에 하는 교육에 가요. 기관에서 교육에 지원해주기는 하는데 합격을 해야 지원해주고, 경력이 있어야 지원해줘요. 저는 경력이 없어서 지원도 못 받았고 이때까지 제 돈으로 교육 갔어요.”(대상자 3)

(2) 대인관계 어려움: 작업치료사들 사이, 타 분야의 치료사들 사이

대상자들은 다른 치료사들과의 의사소통의 방식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대부분의 대상자들이 대인관계의 중요성에 대해 언급하였고, 적응하기 가장 힘든 부

분이라고 하였다. 치료실의 딱딱한 분위기로 인해 신입 아동작업치료사들은 아동에 대한 치료적 문제를 자유롭게 의논하지 못하였다.

“저는 문을 닫고 치료해요. 치료에 대해 터치하는 사람이 없어서 혼나지는 않는데, 치료가 늘지는 않아요. 선생님들 사이에 교류도 없고, 선생님들끼리 편이 갈리고, 또 작업치료사끼리, 물리치료사끼리 나뉘고 해서 다른 선생님들하고 관계 쌓기가 어려워요. 학교에서는 지금보다 더 친하게 지냈었는데 하는 생각이 들고, 지금은 선생님들하고 관계가 딱딱해요.”(대상자 1)

(3) 직무에 대한 만족과 불만

치료와 관련된 직무에 대해서 대부분의 대상자들은 만족하였고, 치료 이외의 직무에 대해서는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치료와 관련된 직무에서 대상자들은 스스로 평가 및 치료의 내용을 구성하였고, 특정 기관에서는 치료의 양도 대상자들이 결정하여 만족도가 높았다. 그러나 치료 이외의 업무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었다. 근무하고 있는 기관의 특성상 기관홍보, 당직, 아동 보육, 차량 지원, 게시판 꾸미기를 하는 것에 당황스러워하였다. 전문적인 치료 외에 다른 분야의 업무에 대해 치료사로써 정체성에 혼란을 가지는 대상자도 있었다.

“다른 기관에서는 홍보 안하잖아요. 저희 기관을 잘 아는 곳이 없어서 복지관 이런 곳을 연계하려고 한 달에 한 번 금요일에 가서 홍보해요. 치료실에 선생님들이 나뉘서 해요. 처음에는 창피한 거예요. 치료산데 왜 이런 거를 해야 하나하고 생각을 하기도 했어요.”(대상자 4)

“우리 직원들끼리 원장님한테 불만을 다 이야기 했어요. 치료사는 치료사 일만 하고 싶다고 했어요. 바우처를 할 때 서류가 있어서 그런 이야기를 했죠. 원장님이 섭섭해 해도 그런 이야기를 했죠.”(대상자 2)

4) 교육에 대한 열망

(1) 학교 교육

대상자들은 임상 경험을 하면서 교과과정에서 배운 것을 바로 임상에 적용할 수 없는 한계점과 실습의 다양성이 필요함을 이야기 하였다. 학교에서 배운 이론과 봉사활동으로 배운 내용은 임상에 적용하는데 차이가 있었다. 교과과정에서 실습을 더 많이 하고, 학회에서 운영하는 교육처럼 한 가지 치료 접근법에 해당하는 신경계, 평

가, 치료 접근법을 전체적으로 배웠으면 하고 바랬다. 임상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실습과정에서 경험한 것을 초기에 많이 이용하여 치료하였다. 다양한 실습을 경험하는 것이 취업지를 선택하고 임상 경험을 쌓는데 바탕이 된다고 하였다.

“학교에서 배운 내용은 시험에 관련된 것이라 실전에서 사용하기 어려워요. 학교 다닐 때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많이 봤으면 해요. 실습 때 어떤 기관은 이렇게 하던데라는 기억으로 해요.”(대상자 3)

(2) 교육에 대한 지각

대상자들은 배우는 것에 대해 긍정적이었고, 더 많이 배워야겠다는 욕구도 가지고 있었으며 학점은행제나 대학원 진학에 대한 계획도 있었다. 아동을 계속 치료하면서 책임감을 느끼며 자기 성찰을 하게 되었다. 대상자들은 이미 일을 하면서 세미나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고, 더 배우고 싶은 교육도 가지고 있었다. 지속적인 세미나 등의 교육을 통해 배우고 싶어 하였다. 또, 기관 내 스터디나 교육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실제로는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 기관의 특성상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거나 경력이 많은 치료사들이 참여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 신입 아동작업치료사로써 배우고 싶은 열정과 의욕은 많았으나 환경적으로 지지되지 않았다.

“치료를 잘하는 치료사가 되고 싶어요. 내년이나 다음 해에 돈이 좀 모이면 학점은행제를 하려고 해요. 대학원을 가야겠다는 목표도 있어요. 다른 선생님들이 보수교육이나 자격증이 있는 교육을 많이 들으라고 하시더라고요.”(대상자 5)

“다른 동기 중에 00가 교육도 많이 다니고 자체 스터디가 많은 것도 부러워요. 한 번씩 교육 갔다가 지쳐서 오면 안 부럽다 라는 생각이 들지만...(웃음, 혼자(치료)하니깐 많이 안 보이는 게 많은 것 같아요.”(대상자 1)

(3) 교육방법

대상자들은 전부 임상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분야의 세미나, 교육에 참여한 경험이 있었다. 특정 교육은 자신의 임상 경험이나 공부에 도움이 되었으나 대부분의 교육에서는 거의 도움을 받지 못했다고 하였다. 교육을 받을 당시에는 잘 사용할 수 있을 꺼라는 생각을 하였으나 실제 임상 적용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작업치료의 어떤 분야를 공부해야하는지 모르거나 공부하는 방법을 몰라 힘들어 하였다. 알고 싶은 것이 있다하더라도 물어볼 선임이 없는 경우, 어떤 책을 봐야 할지 모르는 경우, 어떻게 논문을 찾아야 할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공부는 하고 싶은데, 해야겠다고 마음은 먹는데, 이 책도 봐야하고 저 책도 봐야 해서요. 스터디를 한 번 하려고 동기들 끼리 모였어요. 근데 어떤 주제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 거예요. 그런 학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임상가를 위한 학원-감각통합치료집근 학원, 보바스 접근 학원-이 있었으면 좋겠어요.”(대상자 4)

5) 적응 전략

대상자들은 임상 경험을 하면서 점차 치료의 전문성이 높아졌고, 조직 내 적응 전략을 만들었다. 또한 일과 개인의 생활을 하게 되면서 개인의 가치관에 변화를 경험하였고, 자기인식을 하게 되었으며 생활의 안정화를 찾았다.

(1) 개인 생활의 적응 전략

대상자들은 아동작업치료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학교 생활에서 사회생활로 전환하게 되었다. 이 때문에 체력적으로 힘들거나 갑작스런 생활의 변화를 경험하였다. 그러나, 일에 맞추어 여가를 계획하여 일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노력하거나 조직 내 적응을 위해 자신을 성찰하였다. 자신이 하는 치료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느껴 사회를 위한 일을 하는 것에 가치를 두었고,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며 노력하는 삶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치료에 대한 전문성이 높아지고, 기관의 환경에 적응하면서 개인 생활에서도 안정감을 가졌다.

“돈은 적게 벌수도 있고 많이 벌수도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저한테 이득이 되는 일을 하고 싶어요. 공부를 할 수도 있고 희열감을 느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누군가를 위해서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어요. 이런 부분이 변한 것 같아요.”(대상자 3)

“저는 원래 학교 다닐 때는 멀리서 다녀도 밥도 꼬박꼬박 먹고 아침도 꼭 챙겨먹고 자취하면서도 다 했었어요. 친구들 집에 초대해서 술 마시고, 놀고, 학교도 잘 나가고 결석도 안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일하면서 밥을 못

해먹었어요. 늘 사먹었어요. 일 끝나면 배고프고 가서 밥 해먹고 하지 못해요. 그럴 여유가 없어요. 근데, 가까운 곳으로 해서 (시간을) 쪼개서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번 겨울에는... 여행을 가려고요. 강원도나 해남이나 이런 곳에 가려고요. 등산 진짜 좋아하거든요. 틈틈이 등산 가려고 해요.”(대상자 2)

(2) 치료의 적응 전략

대상자들은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직장 내에서 좋은 멘토를 찾거나 책을 찾아보기, 스터디에 참여하기, 또는 세미나 등의 교육에 참여하기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 자신이 치료하는 아동에게 시도하였고 그에 따라 성취감, 만족감, 기쁨과 보람을 느꼈다.

아동작업치료에 대해 전문성이 향상됨에 따라 아동과 보호자와의 관계형성이 안정화되었고 만족감도 느끼게 되었으며, 더 치료에 집중하게 되었다. 치료적 환경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치료적 전문성이 향상되었다. 보호자와 직접 만나기 어려운 환경에서는 치료시 아동의 반응을 보고 만족하였고, 보호자와 상담이 가능한 환경에서는 보호자가 만족스러운 반응을 보이는 것, 보호자가 다른 사람에게 치료사 자신을 추천해주는 것에서 만족하였다. 치료에 자신감이 생김에 따라 대상자들은 조직 내에서 생활하는 것에 여유를 가지게 되었다.

“선임 선생님이 다 가르쳐 줬어요. 신경계 이런 것도 다 가르쳐 줬어요. 좋은 멘토가 2명 있어요. 배울 수 있는 누군가가 있는게 좋은 것 같아요.”(대상자 2)

“치료하는데 이제 주관적으로 문제점은 보여요. 아이가 들어오면 이런 부분이 문제점이구나 하고 잡아내요. 조금은 보는 눈이 생긴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아이는 이것부터 시작해야겠다. 그 다음에 이거 해야겠다 라는 생각을 해요. 혼자 시뮬레이션도 해봐요.”(대상자 5)

(3) 조직의 적응 전략

연구 대상자들은 조직 내 적응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직의 규칙, 치료사와의 관계에 대해 타협과 수용의 방법을 사용하였다, 선임 치료사와 대화를 많이 하여 서로를 이해할 기회를 많이 가지거나 자신의 성격을 원만하게 변화시켜 대인관계 향상을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치료사들과 적절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퇴근 후 사적인 시간을 할애하여 모임을 갖거나 다른 치료사의 업무를

돕거나 자신이 한 언행을 뒤 돌아보고 주의하여 생활하는 적응 전략을 사용하였다.

“병원에서처럼 뽀뽀하게 치료 안하고 3년차 지금 선임 선생님도 실습 때 봤었고, 계속 이야기도 주고 받고 해서 편해졌어요.”(대상자 5)

“일을 하면서 대인관계가 좋아져서 특별한 일이 아니면 화를 내거나 하는 일이 드물어요. 동글동글 해졌어요. 초기에 비해 이런 면이 달라진 것 같아요. 좋게 말하면 대인관계가 좋아진 것 같아요.”(대상자 2)

2. 임상 경험 과정의 적응 전략

신임 아동작업치료사들은 자신의 전공과 관련하여 전문성을 가질 수 있고, 함께 일을 하게 될 선임 치료사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취업을 하였다. 그러나, 현실은 기대했던 것과 다르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다. 신임 아동작업치료사들은 치료의 전문성에 대한 불확실, 조직 체계에 대한 불만,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다.

11개월 동안 지속된 경험을 통해 신임 아동작업치료사들은 적응 전략을 만들었다. 먼저, 신임 아동작업치료사들은 아동을 치료하면서 자신이 하는 치료에 대한 불확실성과 책임감을 느끼며 스터디나 세미나 등 다양한 교육 방법을 모색하였다. 또한 치료를 받는 아동과 보호자의 긍정적인 반응, 선임 치료사의 적절한 피드백은 신임 아동작업치료사의 전문적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을 주었다. 수용과 타협의 전략을 통해 조직 체계 내의 여건에 적응하였고, 치료사들 사이에 적절한 관계를 형

성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자기성찰을 통해 치료 및 조직 내에 적응하면서 만족도 및 성취감이 증가하였고, 개인의 가치관이 변화하였으며 자기 인식 및 정체감도 형성되었다. 이는 신임 아동작업치료사의 개인 생활을 안정화시켰고, 궁극적으로 치료를 받는 아동에게 더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그림 1).

IV. 고 찰

본 연구는 신임 아동작업치료사들이 어떠한 임상 경험을 겪는지 알아보기 위해 실시되었다. 신임 아동작업치료사들은 약 11개월의 임상 경험을 하는 동안 아동작업치료에 대한 기대, 능력 부족, 조직생활에 대한 감정, 교육에 대한 열망, 적응 전략의 과정을 겪었다.

본 연구에서 대부분의 신임 아동작업치료사들은 학교 교과과정 중 경험한 실습을 통하여 아동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자신이 하고 싶은 치료접근법을 결정하였으며 취업 시 아동작업치료를 선택하였다. 이향숙 등(2010)과 최미경 등(2004)은 본 연구와 같이 임상실습이 전공과 관련한 기관의 현황 및 미래 전망을 파악하게 하여 진로를 결정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신임 아동작업치료사들은 실습과 임상경험 간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하였으나 아동작업치료를 선택하는데 실습 경험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하였다. 실습 경험을 통해 자신이 진정으로 하고 싶은 일을 찾았고, 그 경험을 소중히 생각하였다. 학생들이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데 다양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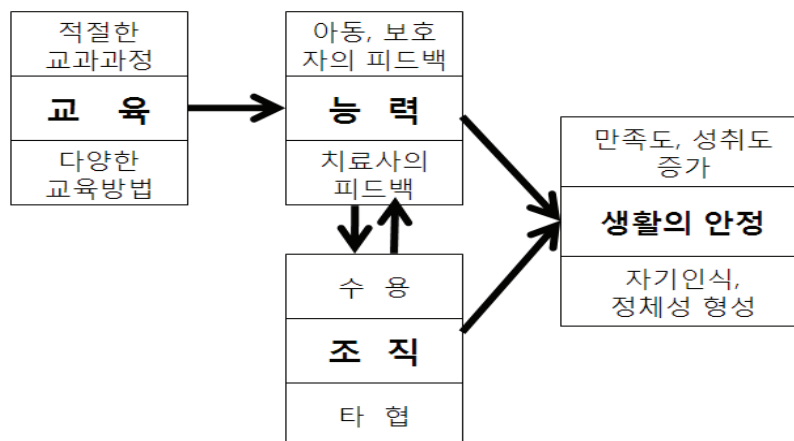


그림 1. 임상 경험 과정의 적응 전략

분야로의 실습 경험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연구의 결과, 신입 아동작업치료사들이 경험한 어려움은 치료에 대한 전문성 부족이었다. 이는 간호 및 다른 보건의료분야의 신입 치료사들이 느끼는 것과 동일하였다(손행미, 고문희, 김춘미와 문진하, 2001; Seah et al., 2011). 본 연구의 신입 아동작업치료사는 교육을 통한 개인적 노력과 아동, 보호자가 주는 피드백을 통해 자신감을 얻고 있었다. 또한 같이 일을 하는 선임 치료사의 지도나 피드백을 통해 치료에 대한 불확실성을 줄이고 자신감을 높이고 있었다. Tryssenaar와 Perkins(2001)는 슈퍼비전이 유능함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하다고 하였다. 슈퍼비전은 신입 아동작업치료사의 자신감, 창조성, 성찰을 촉진한다고 하였다(Morley, Rugg, & Drew, 2007). 특히 선임 치료사의 피드백을 받은 신입 아동작업치료사는 더 빨리 치료의 전문성을 갖게 되었고, 조직 체계와 다른 치료사와의 관계형성에서 긍정적인 태도를 가지게 되었다. 이는 만족감, 성취감, 가치관에 변화를 가져왔으며 치료에 대해 더 노력하고 집중하는데 영향을 주었다. Seah 등(2011)에 의하면 자신의 기대와 일의 양, 일의 사회적 측면이 일치 될 때 만족이 높아진다고 한다.

신입 아동작업치료사들이 경험한 가장 큰 어려움은 조직 체계 적응의 어려움이었다. 수용하기 어려운 기관의 여건과 수직계층적인 조직 체계, 딱딱한 선임 치료사와의 관계로 인하여 치료실 내에서 융화되기 어렵다고 하였다. 다른 치료사들과 처음 관계를 맺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선임 치료사의 지적과 꾸지람에 마음이 상하거나 긴장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수용과 타협이라는 방법으로 신입 아동작업치료사들은 이 어려움을 극복하였다. 자기성찰을 통해 자신이 한 행동을 되돌아보거나 자신의 성격을 바꾸려고 하는 등의 노력을 하였고, 선임 치료사들의 꾸지람에 순응하는 태도로 대인관계를 형성하였다. 조직 체계 내 적응은 치료의 전문성이 향상되면서 치료 외의 다른 부분에 여유가 생겨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신입 아동작업치료사들이 겪는 이러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새로운 역할습득과 성공적인 사회화를 이루도록 돕는 프로그램이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김창희와 김혜숙, 2000). 현재 주로 간호 분야에서 사용하고 있는 프리셉터쉽은 신입 간호사의 소속감, 타 치료사와의 협조, 임상

수행능력 향상, 인간관계기술 향상 등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다(김창희와 김혜숙, 2000). 원활한 적응을 위해 간호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프리셉터쉽을 도입하는 것이 좋은 해결방법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 참여한 신입 아동작업치료사들은 모두는 교과과정 중 1000시간의 실습을 하였다. 그러나 전문성 부족에 대해 스트레스를 받았고, 교과과정 중 더 많은 실습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으며 더 전문적인 접근을 요구하였다. 대상자들은 지속적인 치료를 하면서 항상 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느꼈으나 임상의 여건, 의지 부족으로 실행하지 못하고 있었다. 교육은 임상가들의 유능함을 촉진시킨다(Seah et al., 2011). 졸업반 학생들의 교육에서는 임상의 특정 영역에서의 기술을 최대로 끌어올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독립적으로 배우고 성찰하는 기술을 알려주는 것 또한 중요하다(Hodgetts et al., 2007). 신입 아동작업치료사 중 교육 방법에 대해 잘 모르거나 임상가를 위한 학원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하여 우리나라의 학교 교육의 한계점이 여실히 드러났다. 학교 교육의 초점이 단순히 임상을 위한 기술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학습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신입 아동작업치료사들은 치료의 전문성, 조직 체계에 대한 적응전략이 생김에 따라 만족도와 성취도가 높아졌고, 계속되는 자기성찰을 통해 자기인식의 계기를 마련하게 하였다. 초기 임상 생활동안 새로운 환경과 상황을 접하게 되어 적응하기 어려웠으나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 보고 중요한 가치에 대해 생각하는 기회를 가지게 되었다. 다양한 경험을 통한 적절한 적응은 신입 아동작업치료사에게 삶의 목적, 직업으로써 아동작업치료사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었고, 나아가 작업치료 제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신입 아동작업치료사들이 빠른 시간 내에 임상에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한다면 개인의 생활도 빨리 안정화 될 수 있고, 더 생산적인 부분으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기관 부적으로 인한 이직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여 기관의 시간 및 에너지의 낭비를 막을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학교 교과과정의 개편, 실습기관의 다양화, 전문 학회의 교육 개발, 대인관계나 의사소통기법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강화, 기관 내 프리셉터쉽 제도 도입 등이 필요할 것이다.

본 연구는 몇 가지 제한점이 있다. 첫째, 질적 연구의 특성상 심층적 면담이 필요하여 많은 수의 대상자, 다양

한 지역의 대상자와 면담하지 못하였다. 이로 인해 신입 아동작업치료사의 임상경험에 대해 일반적인 결론을 내리는데 한계가 있다. 둘째, 대상자의 근무지 환경과 학제에 한계가 있었다. 연구의 대상자들은 준종합병원, 센터, 어린이집 근무자로 종합병원이나 대학병원 등의 대형기관에 근무하는 대상자가 포함되지 않았다. 또한, 모든 대상자들이 전문대학을 졸업하여 4년제 대학교를 졸업한 신입 아동작업치료사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셋째, 본 연구는 현재의 임상적 상황에서 과거의 경험을 기억하여 한 연구이므로 학교에서 임상으로 전환되는 1년간의 모든 경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의 연구에서는 대상자의 근무지 유형에 따른 연구, 신입 성인작업치료사들이 겪는 경험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고, 연구의 방법을 다양화하여 분석하는 것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 나아가 본 연구를 바탕으로 신입 아동작업치료사가 빨리 적응할 수 있는 방법을 적용한 후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는 것도 필요하다.

V. 결 론

본 연구는 신입 아동작업치료사들이 겪는 임상 경험을 알아보기 위하여 5명의 아동작업치료사와 면담을 하였고, 그 내용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14개 중심의미와 5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신입 아동작업치료사들은 약 11개월 동안 기대, 능력 부족, 조직생활에 대한 감정, 교육에 대한 열망, 적응 전략을 경험하였다. 신입 아동작업치료사들은 실습시 긍정적인 경험과 다양한 기대감을 가지고 임상에 입문하게 되었다. 그러나 치료의 전문성 부족, 조직 체계 내 적응의 어려움을 겪었다. 임상을 계속 이어나가면서 치료와 조직 체계에 대한 적응 전략을 가지게 되었다. 치료에 대한 적응 전략은 책을 통한 개인 공부, 세미나, 학회의 교육, 스터디의 다양한 교육에 참여하기, 아동 및 보호자, 치료사의 피드백이었다. 조직 체계의 규칙과 대인관계에 대한 적응 전략은 수용과 타협이었다. 지속적인 자기성찰을 통한 적응 전략을 사용하면서 만족감과 성취감이 높아졌고, 자기 인식과 정체감이 형성되었으며 개인 생활에 안정감을 느끼게 되었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신입 아동작업치료사들이 겪는 다양

한 임상 경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어려움에 대한 적응 전략을 제시하였다. 신입 아동작업치료사들이 아동작업치료사로서의 역할에 부응하고, 소속기관에 적응하며 이탈되지 않도록 기관장이나 경력이 많은 치료사들이 협력해야 할 것이다. 특히, 신입 아동작업치료사들은 조직 체계의 적응, 치료 전문성 부분에서 어려워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보이므로 실제적인 교과과정의 개편, 대인관계나 의사소통기법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강화, 기관의 제도적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 김경미, 유은영, 강대혁, 이미자, 이재신, 이택영 등. (2004). 작업치료 교육기관인증제 도입의 필요성에 대한 작업치료(학)과 교수 및 학생들의 인식도 조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2(1), 97-108.
- 김경미, 이재신. (2002). 작업치료사 국가시험 과목과 직무와의 연관성에 관한 조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0(2), 109-118.
- 김정연, 김인숙. (2005). 신규 간호사의 프리셉터쉽 경험. 임상간호연구, 10(2), 75-88.
- 김진경, 박소연, 이택영, 강대혁. (2004). 작업치료(학)과 학생들 대상으로 한 임상실습에 관한 연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2(1), 69-82.
- 김창희, 김혜숙. (2000). 신규 간호사 배치 후 교육시 프리셉터쉽 적용 사례연구. 성인간호학회지, 12(4), 543-559.
- 손행미, 고문희, 김춘미, 문진하. (2001). 신규간호사의 실무 적응 경험. 대한간호학회지, 31(6), 988-997.
- 심재훈, 차태현, 오덕원. (2009). 임상 작업치료사가 지각하는 임파워먼트와 직무만족, 조직 몰입에 관한 연구.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7(3), 111-120.
- 이정하. (2004). 고3 어머니의 모성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연구, 17(2), 95-120.
- 이향숙. (2011). 작업치료사 핵심직무 분석과 경력과 치료분야에 따른 직무 차이 비교.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9(1), 1-14.
- 이향숙, 노종수, 차정진, 김소란, 김슬기, 박상글 등.

- (2010). 작업치료(학)과 학생들의 임상실습에 따른 전공취업에 대한 인식변화.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8(1), 107-121.
- 이향숙, 정민예, 정보인, 유은영, 박수현, 강대혁. (2010). 국내 작업치료사의 직무특성조사 및 직무 분석. *대한작업치료학회지*, 18(2), 1-21.
- 최미경, 전예숙, 홍원주, 김순경, 김동희, 김애정 등. (2004). 식품영양학과 학생들의 현장실습 만족도 및 평가도에 관한 연구. *한국식품영양과학회지*, 33(2), 373-380.
- 한상숙, 손인순, 김남은. (2009). 신규간호사의 이직의도와 영향요인. *대한간호학회지*, 39(6), 878-887.
- Alison, H. M., & Gullberg, T. M. (1991). Nursing education and definition of the professional nurse role. *Nurse Education Today*, 11(1), 30-36.
- Atkinson, K., & Steward, B. (1997). A longitudinal study of occupational therapy new practitioners in their first years of professional practice: Preliminary findings. *British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0(8), 338-342.
- Case-Smith, J. (2007). Deriving practice implications from this issue's sample of pediatric occupational therapy research literatur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1(4), 375-377.
- Creswell, J. W. (2003). *Research design: Qualitative, quantitative, and mixed methods approaches*. Thousand Oaks, CA: Sage Publication, Inc.
- Frost, F. K. (2011). *The lived experience of pediatric occupational therapist when providing culturally responsive services to children and families from diverse background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University of Saybrook, San Francisco.
- Giorgi, A. (2002). The question of validity in qualitative research. *Journal of Phenomenological Psychology*, 33(1), 1-18.
- Guba, E. G., & Lincoln, Y. S. (1981). *Effective evaluation: Improving the usefulness of evaluation results through responsive and naturalistic approaches*. San Francisco: Jossey-Bass.
- Hodgetts, S., Hollis, V., Triska, O., Dennis, S., Madill, H., & Taylor, E. (2007). Occupational therapy students' and graduates' satisfaction with professional education and preparedness for practice. *Canadi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74(3), 148-161.
- May, W. W., Morgan, B. J., Lemke, J. C., Karst, G. M., & Stone, H. L. (1995). Model for ability-based assessment in physical therapy education. *Journal of Physical Therapy Education*, 9(1), 3-6.
- Morley, M., Ruggs, S., & Drew, J. (2007). Before preceptorship: New occupational therapists' expectations of practice and experience of supervision. *British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70(6), 243-253.
- Myers, C. T. (2008). Descriptive study of occupational therapists' participation in early childhood transitions.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62(2), 212-220.
- Schwertner, R. M., Pinkston, D., O'Sullivan, P., & Denton, B. (1987). Transition from student to physical therapist: Changes in perceptions of professional role and relationship between perceptions and job satisfaction. *Physical Therapy*, 67(5), 695-701.
- Seah, G. H., Mackenzie, L., & Gamble, J. (2011). Transition of graduates of the master of occupational therapy to practice. *Australian Occupational Therapy Journal*, 58(2), 103-110.
- Slocum, A. (1998). Reflections and realities from family studies teachers: The first years. In A. Slocum (Ed.), *Home economics/family studies education in the Canadian classroom: A collection* (pp. 1-14). Ottawa, ON: Canadian Home Economics Association.

Tryssenaar, J., & Perkins, J. (2001). From student to therapist: Exploring the first year of practice. *American Journal of Occupational Therapy*, 55(1), 19–27.

Abstract

A Phenomenological Study on the Experience of Novice Pediatric Occupational Therapists

Hong, Eun-Kyoung*, M.S., O.T., Kim, Kyeong-Mi**, Ph.D., O.T.

*Dept. of Rehabilitation Science, Graduate School of Inje University

**Dept. of Occupational Therapy, College of Biomedical Science and Engineering, Inje University

Objective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understand the meaning of clinical experience for novice pediatric occupational therapists and to comprehend its adaptive strategies.

Methods : A phenomenological approach for qualitative research was adopted for this study. The participants were 5 pediatric occupational therapists that had 10 to 11 months of experience. Data were collected through face-to-face interviews and e-mail. The interviews were recoded, transcribed, and analyzed thematically.

Results : Five themes emerged from the interview data. The themes were as follows: 1) Expectations regarding pediatric occupational therapy: selection and expectations regarding pediatric occupational therapy. 2) A shortage of competence: uncertainty and a lack of confidence regarding intervention. 3) Emotions toward the organization: satisfaction and dissatisfaction regarding the organization, relational skills with therapists, and job dissatisfaction. 4) Fervent desire about education: recognition regarding education and method of education. 5) Adaptive strategy: adaptive strategy for professional and personal lives.

Conclusion : This study was conducted to comprehend the experience process of novice pediatric occupational therapists. The results will assist in the development of an educational curriculum, and clinical support to help in the adaptation of novice pediatric occupational therapists.

Key words : Clinical experience, Novice pediatric occupational therapist, Phenomenological study